

전 남

4·11 보궐선거 당선 시군 단체장

“동부권 통합 위해 여수·광양시와 협력”

조충훈 순천시장



개시 시장들과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발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소외된 곳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이뤄지도록 농업·교육·복지 체제 또는 추진과제가 루어지는 안된다”며 “즉근이 없는 탕평인사로 일 잘하는 공무원을 대거 발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으로 격려와 칭찬, 소통이 통하는 따뜻한 행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중앙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과 민선3기 순천시장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지역사회 갈등 해소... 화합·소통 최우선”

강진원 강진군수



지역 주민과의 연결 통로가 돼 역동성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와 한·중FTA, 한·일FTA가 체결 또는 추진돼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강진군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산을 기록제로 활용, 세계속에 강진을 심는 역할을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학생, 농·수·축·임업인, 공무원, 사회단체 등)를 적극적으로 해 강진발전을 함께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군수는 건국대 정보학과와 미국 시라큐스 대학원을 졸업, 1987년 공직에 입문해 각종 부군수·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 기획단장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전남지역 동계훈련 경제효과 520억원

따뜻한 전남지역이 동계훈련지로 각광받으면서 지난 겨울 52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광양·여수·강진·목포 등지에 축구·야구·육상 전지 훈련장과 기반시설을 잘 조성돼 있어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등 연인원 51만여명이 동계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전남을 찾은 동계훈련팀이 지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20억원으로 분석돼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특히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이 지난 2월 18일부터 6일간 영암을 찾아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을 위한 전지훈련을 했다. 또 축구·배드민턴·육상·체조·사격 등 9개 종목 17개 국가대표와 상비군·유소년대표팀이 런던올림픽과 국제대회를 대비해 전남에서 훈련을 했다. 종목별로는 축구·육상·야구 순으로 이들 상위 3개 종목이 70%(36만명)를 차지했다. /오광록기자 kroh@

순천 낙안 이곡마을 14일 배꽃 잔치



순천시 낙안면 이곡 ‘배꽃피는 마을’에서 14일 ‘제8회 배꽃 잔치’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낙안배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한그루 배나무 분양을 비롯해 배꽃나무 사이 보물찾기·배길게 깎기·소울악화·떡메치기·재물잔치, 빛 사이로 배꽃 구경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소규모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꽃피는 마을’은 지난 2007년 농촌진흥청 지정 농촌교육장으로 배음식 가공과 나무 공작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일자리·소득 창출”

김철주 무안군수



확보로 농어민이 잘사는 농촌 ▲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미래

비전 있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전남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해 “전남도지사와 공감대를 형성, 현금이든 토지든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안반도 통합은 그동안 5차례의 무산을 통해 무안군민들의 의사를 분명하고 정확히 밝혔다”며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김 군수는 조선대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과 제 7, 8대 전남도의원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고흥만 방조제서 학꽂치 낚시대회



‘고흥만 학꽂치 낚시대회’가 14일 고흥만 방조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가족팀(2명) 각 50명씩 100팀을 선착순 모집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고흥군 해양수산과(061-830-5258)와 우주항공축제 홈페이지(festival.goheun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최다어 1등 50만원, 2등 40만원, 3등 30만원, 최다어 1명 2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고,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추첨해 고흥 농·수·특산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고흥만 방조제는 매년 4~5월이면 학꽂치가 몰려 전국의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Advertisement for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Korea's Representative Korean Language Foreign Language Series). The ad features a large title at the top, followed by a list of products including '한자능력검정시험'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series, '주제별 단어장' (Topic-based Vocabulary) series, and '한자능력검정'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eries. It also mentions '2011 DAENEUNG's Best Seller' and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The strongest foreign language book that solves with one volume).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Daeneung Education (www.daeneungedu.com) and a phone number (02)2634-2007.